**삼위일체 대축일(2018년 5월 27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 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난 직후에, 교회의 전례는 아주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면서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로 오르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협조자 성령,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법정에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attorney 라는 뜻이죠.   
  
        법정에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모든 변호를 하는 그런 변호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편에 서서 늘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전례가 바로 지난 주 성령 강림 대축일 이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축일을 지냅니다. 이번 주에는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에는 예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거룩한 대축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신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연중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지내는 이 삼위 일체 대축일은 하느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해당하는 신비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느님의 무진장 큰 신비를 다 이해하고 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 ‘mystery’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느님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거스틴 성인이 하루는 우연히 바다 모래 사장을 걷다가 어떤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아이는 바닷물을 작은 그릇에 퍼 담아서 모래 사장에 파 놓은 작은 구멍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거스틴 성인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다물을 이 작은 구멍에 옮겨 담고 있어요.” 그 순간 어거스틴 성인은 평생을 고민해 오던 하느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성인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바다를 모래 사장 위에 있는 작은 구멍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은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고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그래서 하느님 신비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느님이 그런 신비를 지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이 그런 신비를 지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은 그런 신비를 지니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비를 지니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의 신비는 말 그대로,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란 뜻이죠. 하느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와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 서로 다른 역할과 존재를 가지면서도, 완변한 일치의 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어떻게’를 묻지 마시고, 그건 설명도 이해도 어려우니까, ‘왜 하느님은 삼위 일체이실까?’하고 ‘왜 그런 것일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답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세 분의 위격이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일치하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늘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도 삼위 일체의 신비로 살아가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하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신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처럼,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서로 일치할때,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신비 처럼, 하느님의 삼위 일체의 신비는 우리를 하느님과의 일치의 관계로 이끄시 신비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추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 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신비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때, 우리는 삼위 일체의 신비를 살게 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을 느낄 때, 삼위 일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삼위 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